



# “관음도 그릴 때는 내가 관음돼야”

이만익 씨  
서양화가



## 한국 고유정서 형상화

대표작을 꼽아달라고 하자 2000년에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26번째 개인전 도록을 건넸다. 지난 95년 예술의 전당에서 화업 40년 회고전을 연 이후 5년만에 갖는 국내전으로 회고전 이후의 신작들을 모은 전시회였다. 총 50여점 중 1000호짜리 팔로이들 500호가 넘는 대작도 8점이나 된다. 한국적 정서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과거 전시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추상성이 강해졌고 선이 좀더 자유로워졌으며 무엇보다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대거 등장했다.

‘석굴암본존불’은 형색과 적색의 제한된 색채에서 우리민족 최고의 미술품을 화단에 이관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백제관음’, ‘삼불’, ‘산사’, ‘행려관음도’ 등 이 화백 스스로 모험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불교 소재가 많았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찾다니 숙명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평만하면 화구를 꾸러 전국을 돌아다녔지요. 무엇을 그리는지는 욕심에서 벗어나 ‘비전도’를 그릴 때 내 자신이 구름 위를 날아가고, ‘관음도’를 스케치할 때면 이미 내 자신의 몸이 관음이 된 듯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려고 하는 그림과 손끝의 붓 그리고 화판 앞에 앉은 내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은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 불교미술현대화 대작불사 서원

이 화백은 단순히 화폭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특히 몇몇 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명성황후’의 포스터에도 한국적 분위기가 물씬한 이 화백의 명성황후가 그려져 있었다. 또 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문화행사에서 무대와 의상 소도구들의 백채 코디네이션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막 안중에 들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편인지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거의 1년반 동안이나 그림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겠느냐’ 싶어 일을 맡았다”는데, 이 일을 계기로 또 한번의 변신을 했다. 이후 작품에 생동감이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에서 개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방이나 흉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지요. 전업작가가기 때문에 제자를 키우는 일은 안하고 있지만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들이 이 점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몇 달전 발목을 다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 말고는 아직도 건강에 자신이라는 이 화백은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불교미술의 현대화에 한 몫 기여할 수 있는 대작불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속내를 밝히며 남해안 스케치 여행을 위해 급히 화구를 꾸러 길을 나선다.

글=김주일 기자 jim1@buddhapla.com  
사진=임민수 기자



“관음보살을 평범한 시골 아누네로 의인화한 이만익씨의 ‘관음도’ 나무 아재 한복차림을 한 관음보살이 왼손에는 갈보수가 담긴 정병을 들고 오른손은 턱을 괴고 앉아있다.

“사찰에도 현대미술을 활용한 불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병청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 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전’에 서양화가 이만익씨(64)가 참여한 이유다. 단구에 형용어인 머리, 팔다리, 절은 깎듯 등의 외모와 ‘한국적’ ‘민화적’ ‘신화적’ 화풍으로 널리 알려진 이씨는 요즘 새로운 화두와 씨름 중이다. ‘왜 불교미술 중 국보는 옛 것이어야만 할까’, 이 화백의 이러한 화두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이어진다. ‘근현대 불교미술품 중 어디 국보가 있습니까?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이제 한두개 정도의 국보급 미술품을 불교계가 실력있는 작가들을 활용해서 창조해 내야 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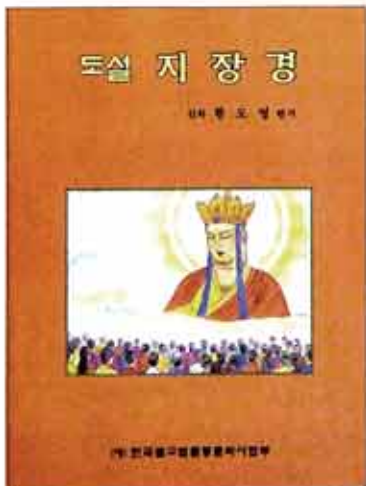
## “국보는 왜 옛것이어야만...”

그동안 풍토사, 선암사, 송광사 등 불교유물이 많은 젊은 어김없이 그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다. 같은시지석탑, 석굴암 본존불, 미륵반가사유상, 백제관음 등 수많은 불상도 화폭에 담았다. 하지만 이씨가 처음부터 불교미술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서울대 미대 졸업 후 10여년간 고교 미술교사 생활을 하다 73년 돌연 프랑스 유학을 떠났고, 2년 후에 돌아온 후부터 서양 현대미술 흉내나 아니라 거꾸로 조선의 민화를 연상시키는 ‘한국적’ 그림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국적’이라는 명사 속에서 불교를 찾아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의 그림이 단순히 소재만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찬란한 원색에 동글동글한 선은 보는 이에게 정겨움과 안도감을 준다. 그의 그림엔 오순도순 어깨를 맞대고 둘러앉은 가족이 있고 흰 한복을 입은 현진남반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다. 하늘을 나는 학과 소나무까지 그의 유쾌한 굵은 그림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고구려 건국신화,

“무엇을 그리는지는 욕심에서 벗어나 그리려는 대상과 손끝의 붓, 화판 앞에 앉은 자신이 일체가 될 때 비로소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이만익 화백.”

# 황도명 스님의 “도설 지장경”



◇‘도설 지장경’ 제6품중에서 ◇‘도설 지장경’ 제12품중에서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그림으로 보고 읽는 “지장경”

엄마와 자녀가 함께 읽기에 좋습니다!!



## 출판기념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귀 불자님과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넘쳐 좋은 날 좋은 삶 되시길  
기원하면서 본종 문화사업부에서 발행한  
도명스님(본종 총무부장)의 편저  
도설 지장경 출판기념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부디 왕림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입 시: 불기 2546년(2002년) 12월 13일(화)  
오후 2시  
◇장 소: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02)703-0108  
◇연락처: 063)563-1683 · 041)734-5377-8

2002년 12월 일

(재) 한국불교법륜중 총무원장 덕산 항법 합장

도명 편저/ (재) 한국불교법륜중문화사업부 발행  
신국판 변형/ 울림라 174쪽 / 값 18,000원  
반포 · 주문처 ☎063)563-1683 · 011)233-2752(HP)  
\* 법보사 주문시에는 할인해 드립니다.